

上流部門 강화하는 메이저

다 국적 石油會社 즉 石油 메이저들이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탐사 개발, 비축, 심지어 석유회사간 합병전략을 전개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原油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精油 産業의 구조개편, 유통구조개선, 마아케팅 활동의 강화를 통해 탈바꿈하고 있는 下流部門은,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업종의 다양화 전략이 앞으로의 석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요요건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로 보아서는 石油 자원의 매장량 확보만큼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주요 石油 메이저의 연차보고서 내용을 종합개제한 Petroleum Economist 誌의 기사내용을 요약 소개한다(編輯者註).

石油 메이저들이 石油 및 가스생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배경은 낮은 石油 수요와 低成長 추세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石油 자원의 절대량은 그 만큼 더 지속시킬 수 있어 어쩌면 다음 세기까지도 에너지源의 主宗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OPEC 産油國 정부의 국유화 조치로 지분원유량이 대폭 감소된 이후 메이저들은 中共을 비롯한 해저유전 및 미개척지역의 탐사개발에 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上流部門으로의 진출 강화는 최근에 美國에서 붐을 형성해온 일련의 석유회사간 합병 매수 현상으로도 구체화 되기도 했다.

美國의 5대 메이저들의 지난 해 연차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보유 石油 매장량이 10% 정도가 고갈 내지 감가상각이 있는 반면, 순수익에 있어서는

평균 15%가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빌과 텍사코를 제외한 3개 메이저는 아직도 상당한 장기부채를 안고 있는 반면, 몇몇 上下部門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됨에 따라 자본 및 탐사개발 지출이 5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 한편 유럽의 2개 메이저는 收益에 있어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매출액도 대규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엑슨

2년동안 수입과 매출액에 있어서 저조한 상태를 겪었던 엑슨은 뚜렷하게 향상된 영업실적을 보였다. 수입은 19% 증가했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15%를 하회하던 수준에서 17% 이상으로 증대되어 이에 따른 배당증가, 부채감소로 구현되었다. 장기부채는 약간 늘어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재무상태는 단기부채의 감소, 순순전자본의 증가등으로 호전되었다. 총자산면에서 6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엑슨은 680억달러의 로얄 더치 셀에 1위를 내주었다는 것이 특기할만 하다.

엑슨은 규모가 세계 제 1위에 있기 때문에 他 메이저 처럼 합병에 눈을 돌리지 않고, 경영능력의 향상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자체 原油 생산능력을 하루 141만 8천배럴에서 158만 2천 배럴로 12%나 확대시켰다. 이의 대부분은 北海, 말레이시아, 濠洲 등지에서의 원유 증산에 의해 성취되었다. 생산량이 대폭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엑슨의 전체 石油 및 가스의 매장량은 증가하여 지난 연말 석유환산으로 149억 배럴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40%는 美國에 있으며, 1979년 이래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엑슨이 지

난 해에 취한 原油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80% 이상을 투자했는데,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下流部門에 있어서도 엑슨은 유조선 보유량, 정유공장 및 주유소등의 시설을 축소 내지 통폐합 정책의 추진, 시설의 현대화(Upgrading) 등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다. 또한 경질제품의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중질 연료유의 판매량을 20% 축소시켰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2년에도 비슷했다. 제품판매량을 보면, 하루 400만 배럴을 판매하고 있는데 의존율은 아직도 여전히 해외의존적이다. 해외판매액은 5년전 69% 보다도 증가한 72%를 점하고 있다. 石油 및 가스에 치중한 나머지 엑슨의 非에너지 활동분야 즉 化學, 부동산, 광산 및 전기분야는 재평가 내지는 구조개편을 해야 할 형편이다.

걸프 오일

· 걸프 오일의 위기는 이상하게도 경영실적이 호전될 때마다 도래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소칼(셰브론)과 합병하게 되어 유럽의 하류부문 시설의 재편 및 매각, 국내에서의 마아케팅 분야, 석유화학 분야를 축소시켰다. 지난 3년간 걸프는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정제능력의 23%를 축소시켰으나, 83년에 들어 계속 석유 및 가스를 발견하여 79년 이래 최대 매장량을 기록하게 되자, 매장량에 있어 빈약한 소칼이 특별한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국내에서의 석유생산량은 저조하지만, 캐나다, 앙골라 및 北海에서 현저히 증가되었다. 한편 국내외에서의 原油구매도 강화되어 순 국내생산량은 하루 1만 배럴 증대, 구매는 7만 정도 확대되었다.

모 빌

지난 해 모빌은 美國의 5대 메이저 중에서 가장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였다. 이와 같은 업적은 해외에서의 석유 收入과 소매단계에서의 판매촉진등의 덕분으로 달성되었다. 비용절감 운동으로 지난 3년간 10억 달러를 절약했으며 美國의 2개 정유공장, 해외의 3개 정유공장의 현대화 작업으로 국내에서의 효율도 크게 신장되었다고 모빌은 주장하고 있다. 石油化學분야 시설에서도 현대화를 추구하고,

리에틸렌과 폴리스티렌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완성했다. 신용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아케팅 활동을 전개했고, 유망신제품의 개발등으로 美國에서의 판매망을 구축했다.

해외 부문에서 모빌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다의 윤활유공장을 1983년에 확장했고, Petromin과 합작으로 건설중인 안부 정유공장은 금년중으로 가동된다. 뉴질랜드에 25%를 투자한 합성가솔린 공장 프로젝트는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인도네시아의 Arun LPG공장에 제 4 공정(trains)과 제 5 공정을 1983년말과 1984년초에 확장 준공하며, 제 6 공정은 1986년에 상업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上流部門으로의 진출은 北美, 北海,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해안지방에 주로 진출하고 있는데 멕시코만 연해와 그 내륙 4개주에서 많은 매장량을 탐사,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北海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구획에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 몇년내에 많은 原油 생산량을 가져올 것이며, 캐나다에서 역시 Sable Island와 뉴퍼운드랜드 근해에서 활발한 탐사개발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uperior Oil을 매수하여 국내생산 특히 天然가스생산량을 확보했다.

石油 및 가스 이외의 사업에의 多角化 戰略은 최근에 전망의 불투명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것도 스크램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Montgomery Ward 프로젝트를 재생시키려고 상당한 자본을 투자, 새로운 마아케팅 전략, 저장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Container Corporation의 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石炭사업에도 확장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소 칼

소칼은 걸프를 매입함으로써 규모를 확장, 美國의 5대 메이저중 엑슨 다음의 대 석유회사로 부상했다. 그리하여 하류부문을 보강하고, 석유 매장량도 2배 이상 확보하여 석유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 석유부문 이외로 다문화 전략을 취하는 것은 메이저들의 앞으로의 번영에 결코 본질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알

□ 海外石油産業動向 □

아차할 수 있다. 왜냐하면 原油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세기의 수요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칼은 몇몇 代替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을 연기하였다. 지하에 매장된 石油을 찾아내기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 및 저질원유 정제효율의 신장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Pascagaul 정유공장에 13억 달러를 투입하여 정제시설 현대화를 이룩하여 동사는 하루 50-100만 달러의 원재료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외에도 6개의 상류부문 프로젝트에 각각 약 20억 달러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열거해 보면, 캘리포니아 연안해 Point Arguello 油田, Hibernia 油田(캐나다), San Joaquin Valley(캘리포니아, 매장량 8억 5천만배럴), Duri 油田(인도네시아, 매장량 18억배럴), North West Shelf 가스田(호주), 기타 수단 프로젝트 등이다.

텍사코

텍사코는 지난 해 4/4분기에 심한 타격을 받아 경영실적이 저조한 유일한 메이저이다. 美国내에서 1,353개 공을 시추해서 277개의 油井을 발견, 40%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상류부문에 박차를 가했던 해였다. 국내 원유생산량은 2% 감소되었으나, Dome Petroleum을 매수함으로써 기반을 확립했다.

기타 Pogo Producing Co.의 11번 광구의 매입을 비롯한 英國의 Forties 유전의 지분도 매입했으며, 금년초 101억 달러를 들여 Getty Oil을 매입함으로써 국내외의 상당한 석유 매장량을 확보했다.

한편 下流部門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텍사코는 27억 달러를 투입, 정제시설 현대화에 착수하여 주요 10개의 프로젝트중 6개 프로젝트가 완성됐고, 3개는 금년에, 마지막 것이 8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美国내에 있는 텍사코의 정유공장중 크래킹 능력은 현재의 50%에서 이들이 준공되면 산업평균보다 높은 65%로 신장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에서의 고질 경질제품 판매능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의 제품판매능력은 몇몇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 컴퓨터화 등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1983년 美国의 제품판매능력은 총 능력의 55%에서 최근에는 60%로 신장되었다.

B P

금년으로 창설 75주년을 맞는 BP는 대체적으로 보아 경영실적이 양호하다. 지난 2-3년 동안에 걸쳐 비수익성 자산을 매각처분하고 下流部門 및 석유화학 부문에 경영 포적을 집중시킨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 매각한 자산으로는 캐나다 정유공장 및 마케팅 자산이 있으며, 현물시장의 이용등 유연한 석유정책을 펴나간 결과 보다 많은 수익을 실현했던 것이다. 동사의 가장 강점으로 남아 있는 경영분야는 上流部門이다. 그것들의 중요한 것을 보면, North Sea Magnus 油田(100% 소유, 생산능력: 112,000B/D), Forties 油田 12% 지분 매각, 中共同안해 시추개시, 알래스카 Mukluk 油井으로부터 실패, Kuparuk 油田(북해의 BP의 최대 유전) 등이다. 그 외에도 北海의 英國과 노르웨이 접경역의 탐사, 이집트, 인도네시아, 濠洲 및 브라질에서 탐사계획을 가지고 있다.

BP는 금년에 83년에 비해 좋은 경영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과연 줄어들고 있는 原油 매장량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품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油田에서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석유무역의 증대, 석유화학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좋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石炭, 금속등 非石油 분야에서는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얄 더치 셸

지난 해는 좋은 운이 겹친 만족스러웠던 해였다. 생산지분 원유량이 하루 150만배럴, 구매원유 하루 240만배럴, 제품수출, 天然가스 판매증대, 石油化學분야에서 흑자로 전환 등으로 순수이익이 38%나 증가되었다. 정유 및 石油化學등의 하류부문의 구조개편등으로 수지를 보기 시작했으나, 더욱 강점을 보인 것은 石油 및 가스등의 상류부문이었다. 다른 메이저들과 함께 동그룹도 세계적인 수요침체 현상에, 크래킹시설 확립, 양질의 경질제품 판매전

락의 전개등으로 대처했다. 지난 해를 한해로 들어 보면, 휘발유 및 기타 경질제품의 판매를 대폭 신장시킨 반면 중질연료유 판매량은 8.5% 줄었는데, 아직도 총 제품판매량은 1%의 완만한 증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메이저들은 2-8%의 감소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非石油 분야에서는 상당히 고전했던 것 같다. 특히 石炭과 금속 프로젝트인데 이들이 준공되면 좋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그룹은 임업, 생물공학분야, 태양에너지 분야에도 개발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주간석유에너지정보).

〈메이저 經營実績〉

(單位 : 백만달러 : BP, RD/Shell은 제외, 백만파운드, 천b/d)

	Net income a)	Amount distributed	Amount retained	Depreciation & depletion	Capital & exploration expenditure b)	Long-term debt c)	Value of fixed assets c)	% return on equity d)	Net crude reserves e)	Total crude supply	Refinery runs f)	Product sales	Natural gas sales g)
Exxon													
1982	4,186	2,604	1,582	3,333	10,813	4,556	38,982	14.9	6,347	3,099	3,496	4,310	5,749
1983	4,978	2,674	2,304	3,527	8,532	4,669	40,868	17.2	6,478	2,582	3,266	4,085	5,686
증감률(%)	+19	+3	+46	+6	(-21)	+2	+5		+2	(-17)	(-7)	(-5)	(-1)
Gulf Oil													
1982	900	507	393	1,461	3,704	2,214	13,876	9.1	1,968	1,421	965	1,190	1,752
1983	978	479	499	1,460	2,770	2,291	14,090	9.9	2,046	1,500	900	1,111	1,547
증감률(%)	+9	(-6)	+27	-	(-25)	+3	+2		+4	+6	(-7)	(-7)	(-12)
Mobil													
1982r)	1,213	836	377	1,736	4,668	4,404	19,315	8.5	2,255	1,674	1,711	2,094	2,946
1983	1,503	813	690	1,892	3,691	5,162	19,878	10.8	2,148	1,337	1,594	2,034	2,580
증감률(%)	+24	(-3)	+83	+9	(-21)	+17	+3		(-5)	(-20)	(-7)	(-3)	(-12)
SoCal													
1982	1,377	819	558	1,137	4,666	1,029	13,552	10.6	1,626	1,863	1,545	1,861	1,384
1983	1,590	819	771	1,294	3,330	1,008	14,232	11.6	1,643	1,371	1,433	1,715	1,340
증감률(%)	+15	-	+38	+14	(-29)	(-2)	+5		+1	(-26)	(-7)	(-8)	(-3)
Texaco													
1982	1,281	750	501	1,296	4,216	1,731	14,086	9.2	1,943	2,025	1,795	2,354	2,689
1983	1,233	771	462	1,717	3,833	2,098	15,092	8.6	1,840	1,615	1,708	2,274	2,372
증감률(%)	(-4)	(-1)	(-8)	+32	(-9)	+21	+7		(-5)	(-20)	(-5)	(-3)	(-12)
Five US majors													
1982	8,957	5,546	3,411	8,963	28,067	13,934	99,811	n.a.	14,139	10,082	9,512	11,809	14,520
1983	10,282	5,556	4,726	9,890	22,156	15,228	114,160	n.a.	14,155	8,405	8,901	11,219	13,525
증감률(%)	+15	-	+39	+10	(-21)	+9	+4		-	(-17)	(-6)	(-5)	(-7)
EUROPEAN GROUPS													
British Petroleum													
1982	716	370	346	1,589	3,664	3,388	13,141	8.7	4,680	2,433	1,550	2,155	423
1983	866	438	428	2,137	3,237	3,802	14,519	9.5	4,584	2,397	1,386	2,116	403
증감률(%)	+21	+18	+24	+34	(-12)	+12	+10		(-2)	(-1)	(-11)	(-2)	(-5)
Royal Dutch/Shell													
1982	1,993	807	1,186	1,698	5,275	6,858	23,204	12.8h)	6,582	3,791	2,971	4,138	5,491
1983	2,754	872	1,882	2,238	4,745	6,825	26,028	15.1h)	6,681	3,913	2,927	4,184	5,480
증감률(%)	+38	+8	+59	+32	(-10)	-	+12		+2	+3	(-1)	+1	-

a) Excluding extraordinary gains or losses. b) Excluding acquisitions. c) At year-end. d) Net in come as % of average stockholders equity. e) Million barrels (incl natural gas liquids). f) In some cases includes processing agreements with other companies. g) Million cubic feet/day. h) Return on average net assets. r) Restated.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